

## 쓰즈키보 - 다품종·소로트 체제 등으로 회생 전념

쓰즈키보는 그 동안 소생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영난으로 정부의 갱생(更生) 수속으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2005년 7월로서 갱생 지원 기간이 끝나자 2006년은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소생의 첫해가 되어 반드시 흑자화하기 위하여 다품종·소로트 대응, 단납기화, 코스트 다운 등을 철저하게 추진할 방침이며, 이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설비 투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시한다. 또한 중국과의 합판 사업도 검토하고 있으며, 제품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의 보유 설비는 이즈모(出雲) 공장에서 면사를, 고치(高知) 공장에서는 혼방사를, 오이다(大分) 공장에서는 직포를 생산하고 있는데, 시설 규모는 정방기 약 16만 추, 직기 약 200대가 된다. 각 공장마다 다품종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즈모 공장에서는 공장 하나를 시작(試作) 전문 공장으로 지정하고, 고치 공장에서도 그 동안 가동하지 않던 공장을 시작점 중변수 생산 공장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특히 고치 공장에서는 폴리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trimethylene terephthalate : PTT) 섬유나 스테인레스 섬유를 사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30%를 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오이다 공장에서는 부분 정경기 등을 도입하여, 다품종·단납기를 추진하며, 시직(試織) 체제도 갖춘다. 해외 사업도 염두에 두고, 한국 등과도 수출 상담을 추진하여 수출을 늘릴 작정이다.

중국에서는 허베이성(河北省)의 승덕제현침방(承德帝賢針紡)과 합판 사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결정되지 않고 있으나 쓰즈키보 고유의 생산 기술 TNS 방식(조방 공정이 없으며, 정방기는 5선 롤러의 드래프트 300~400으로 슬라이버로 방적)과 보통 생산 방식의 두 방식으로 세번수 면사를 생산하려는 방향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중국에서 봉제하는 2차 제품 사업도 시작한다. 자사가 생산한 실, 직물을 사용한 의류로 봉제를 시작할 방향이며, 현재 그러한 작업들을 만들고 있다. ♣